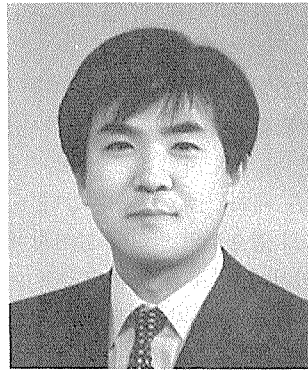


북방자원협력의 나아가야 할 방향



白根旭

〈英國 University of Aberdeen〉

지난해 9월 韓·蘇간의 관계정상화를 기점으로 東北亞 力學關係의 실질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東北亞 제국(韓·日·中·蘇)간의 에너지 협력관계에 있어 새로운 場이 열리고 있다. 즉 첫째, 1960년 蘇·中간의 이념대립으로 단절되었던 에너지 협력관계가 30년만에 재개(먼저 소련이 중국의 유전 2~3개를 턴키 방식으로 개발해주고 대신 中國이 소련 서부 시베리아 튄멘지역의 2개 유전개발을 위해 건설인부들을 파견하는데 합의했고, 실제로 中國은 소련측이 개발한 電場 差分法을 활용하여 90년 11월 河南省 南陽油田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둘째 中國본토와 臺灣 학술단체간의 臺灣해협에 관련된 석유매장량, 지질구조 및 해류특성 등에 관한 정보교환창구개설(이는 *Taiwan大學의 Research Institute of Oceanology와 China's Academia Sinica's South China Sea Institute of Oceanology*간에 이루어 졌다), 셋째 中國정부의 對韓國 黃海大陸棚 공동개발 제의 및 영해경계문제가 未濟로 남아 있는 東支那海의 *Pinghu-4* 천연가스田 개발계획(이는 이 가스田 개발을 통해 1995년부터 하루 80萬m³의 천연가스를 上海의 日常生活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약 16억원(인민화폐)이 소요될 예정), 넷째 日本의 中國내륙 타림분지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착수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차관제공 끝으로 최근 日本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東北亞 4國(韓·日·蘇·中)과 東南亞 국가연합 및 濠州가 포함되는 국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겨냥한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구상”과 소련이 수립·발표한 東시베리아의 야쿠티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한반도와 日本열도에 파이프프로 연결하는 계획등이 포함된 소련 극동개발계획(*Vostok Plan*) 등은 우리에게 지금껏 기대하기 힘들었던 이 지역 제국간의 ‘에너지協力體制’(Regime for Energy Cooperation) 構築의 실현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줌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對北方 자원정책 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껏 금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蘇·中과의 에너지협력관계에 있어 韓國의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심지어 韓國이 이 지역 “에너지協力체제” 구축의 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蘇·中의 에너지현실을 고찰해보면 보다 쉽게 수긍이 간다.

먼저 소련의 경우 주력 에너지인 석유생산이 1988년 12.48백만 배럴(6.24억톤)을 기록한 이래 침체로 일관, 1990년에는 11.4백만 배럴(5.7억톤)을, 그리고 금년 3월에는 10.65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1976년 이래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비록 일부에서는 *Conspiracy Theory*(예를 들어 사할린과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선 연방정부 할당량을 초과달성하고서도 직접 현물교환을 위해 남긴 잉여물량에 대해선 상부에 보고치 않아 현재의 석유생산침체가 위기수준에 달한 것은 아니라는 說)이다. 만약 최근 보도된 진도그룹의 소련산 원유도입(물량 5백만 배럴)이 蘇노동자연맹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면 소련의 석유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소련 국영석유회사(*Sojuznefteexport*)의 의장 블라디미르 아르투니안(*Vladimir A. Artunian*)이 지난 가을 런던서 개최된 "Oil and Money" Conference에서 湖南精油의 소련산 원유도입에 관련된 필자의 질문에 대해 그 물량(106,000배럴)은 자신이 결재를 내린 것이지만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원유수출을 고려한 바 없다고 확인·대답했음을 고려해볼 때 이 說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석유생산 침체가 위기수준에 달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시일내 석유생산의 본궤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유생산감소는 지금껏 소련의 對西方 외화획득의 주력원이었던 원유수출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림과 동시에 蘇聯이 왜혈맹국들에 대한 원유공급결제를 경화(*hard currency*)로 요구하게 되었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대안이 있었다. 1989년 소련내 에너지 소비부문에 있어 천연가스가 석유를 대신하여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것은 한편으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 이상을 차지한 거대한 잠재력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西유럽국이 기존 에너지 중 천연가스를 향후 20~30년간 잠정적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데 異見을 보이지 않는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의 다행에 가까웠다. 문제는 기존 석유·천연가스 개발지역 외에 새로운 대규모 매장지역은 개발조건이 不備된, 환경조건이 혹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련의 자체 능력으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으며 이것이 지난해 蘇聯이 5개 지역(*Timan-Pechora Basin,*

Pre-Caspian Depression, Eastern Siberia, Western Siberia, and the Black Sea)의 17개 구역을 西方會社들과의 합작개발을 위해 개방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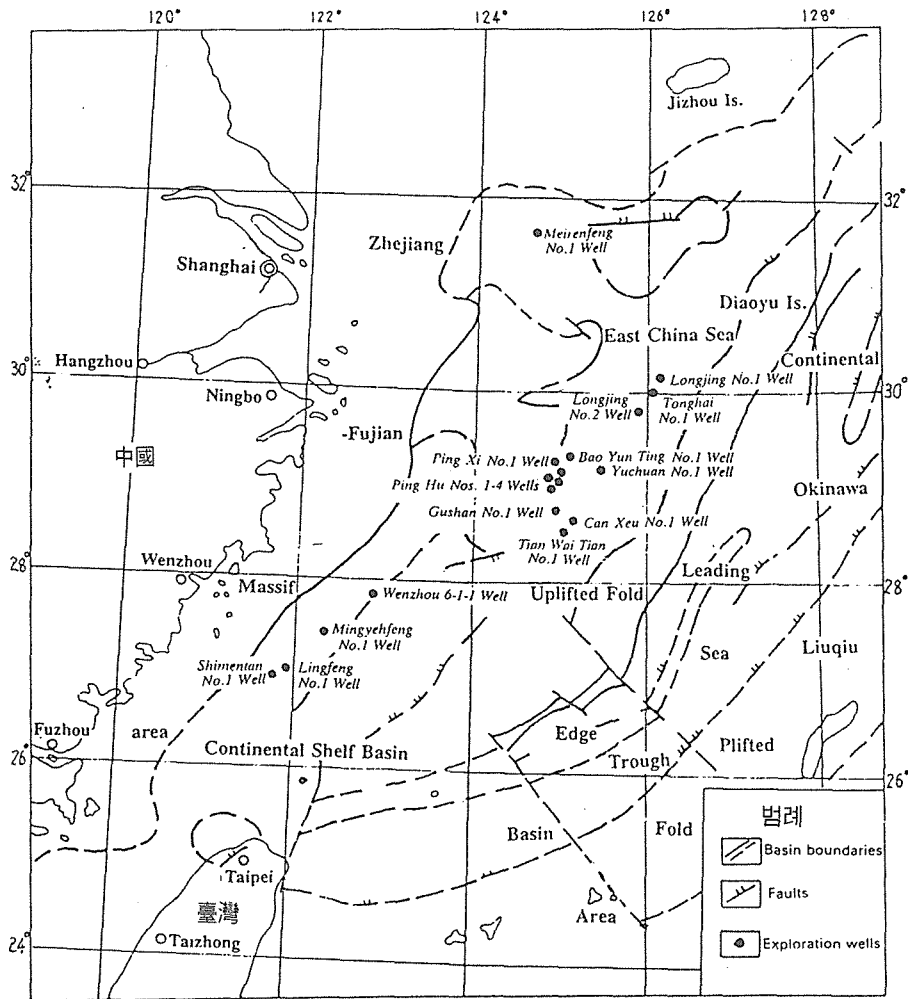
최근 소련의 에너지合作개발을 고려 내지 참여하는 서방 회사들이 연방정부 공화국정부 그리고 주정부간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석유·천연가스 관련 장비들의 60%를 공급하는 바쿠지역 분규로 인한 설비생산 및 공급의 지연 내지 중단, 무책임하고도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주의, 빈약한 법률체계(비록 1987년 1월 對外合作法律이 제정된 이래 일련의 수정·보완을 통해 지난해 "10월 법안"까지 창출되었지만) 루블의 不兌換性, 단일화된 환율의 부재 및 송금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70년간의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소련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개방초기의 투자부담이 큰 만큼 가능성 또한 엄청나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中國의 경우 에너지大國이라곤 하나 주력 에너지인 석탄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량도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기에 그리 여유 있는 편이 못된다. 제8차 5개년 계획(1991~95)을 통해 석유생산을 1.45억톤으로 설정했으나, 그 대다수가 15년연속 5천만톤 이상 생산하고 있는 大慶유전을 비롯하여, 勝利, 遼河, 華北, 中原, 大港, 카라마이유전등에 의해 생산되고, 지난 10여년 동안 대외합작을 통해 크게 기대되었던 해저석유개발의 기여도는 여전히 보잘것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中國海洋石油總公司(CNOOC)는 해저석유생산목표를 1992년 5백만톤, 1995년 8백만톤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생산중인 埕北, 渤中 28-1과 34-214, 428, 瀾州 10-3, 惠州 21-1 油田과 더불어 91년 생산에 돌입하게 되는 惠州 26-1 및 瀾州 10-3北油田, 92년 錦州 20-2 가스, 콘텐세이트田, 93년 綏中 36-1, 惠州 11-4, 陸豐 13-1油田, 그리고 95년까지 流花11-1, 西江 24-3 & 30-2가 완전가동될 경우, 800만톤의 목표량은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中國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5~6%에 달하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동지나해역에 대한 기대가 없진

않지만, 주변국가와의 경계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개발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다(지도1 참조). 최근 中國은 이 지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Ministry of Geology와 CNOOC가 행한 탐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 7월 현재 완료된 17개 探查井들 가

운데 8개에서 유출이, 6개에서는 석유/천연가스 徵候가 있었다. 특히 Pinghu-4 시험탐사에서는 하루 10,000배럴의 석유와 53백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나왔다. 이것은 中國해저에서 발견된 單一井으로는 惠州 26-1-1에 뒤이어 두번째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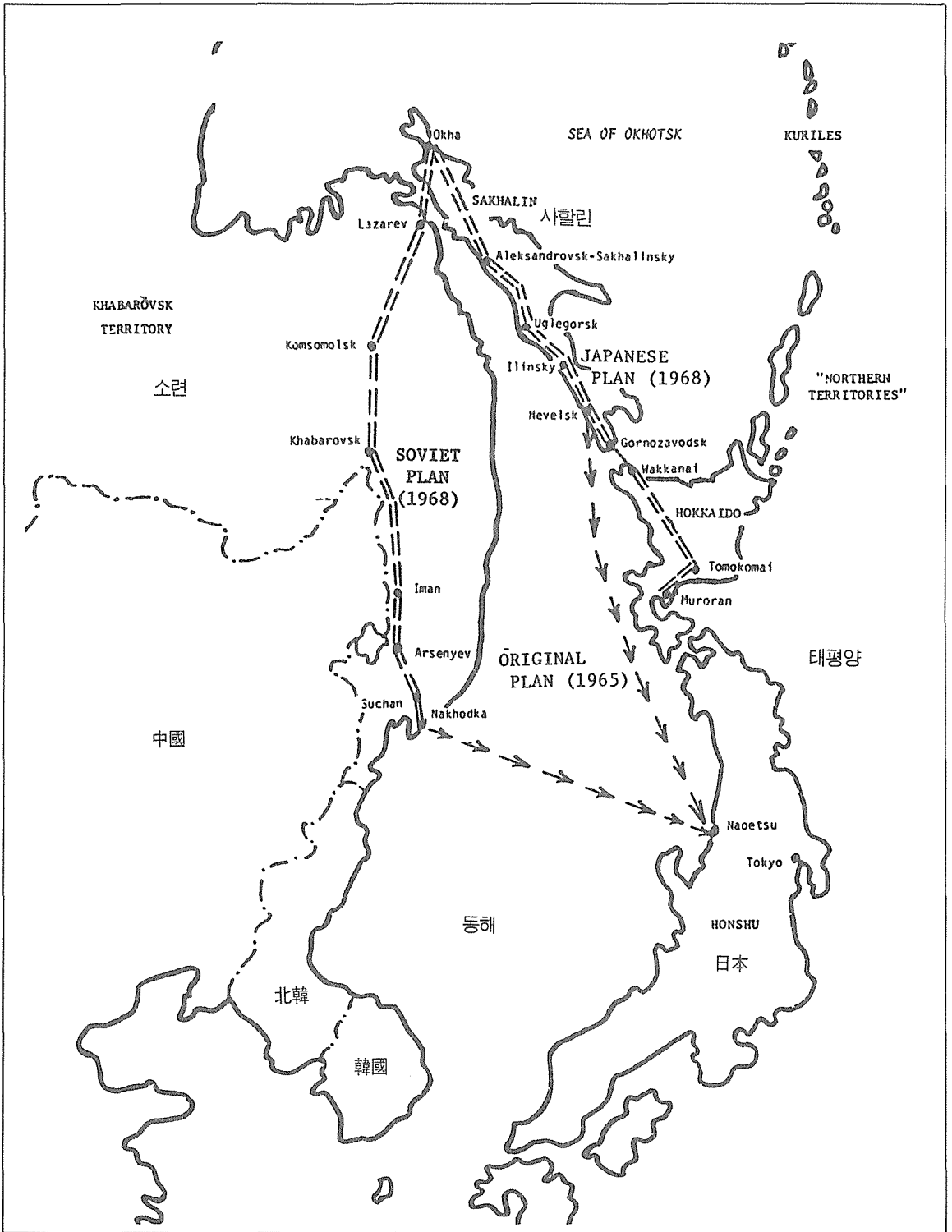
〈지도-1〉 東支那海의 유전 및 천연가스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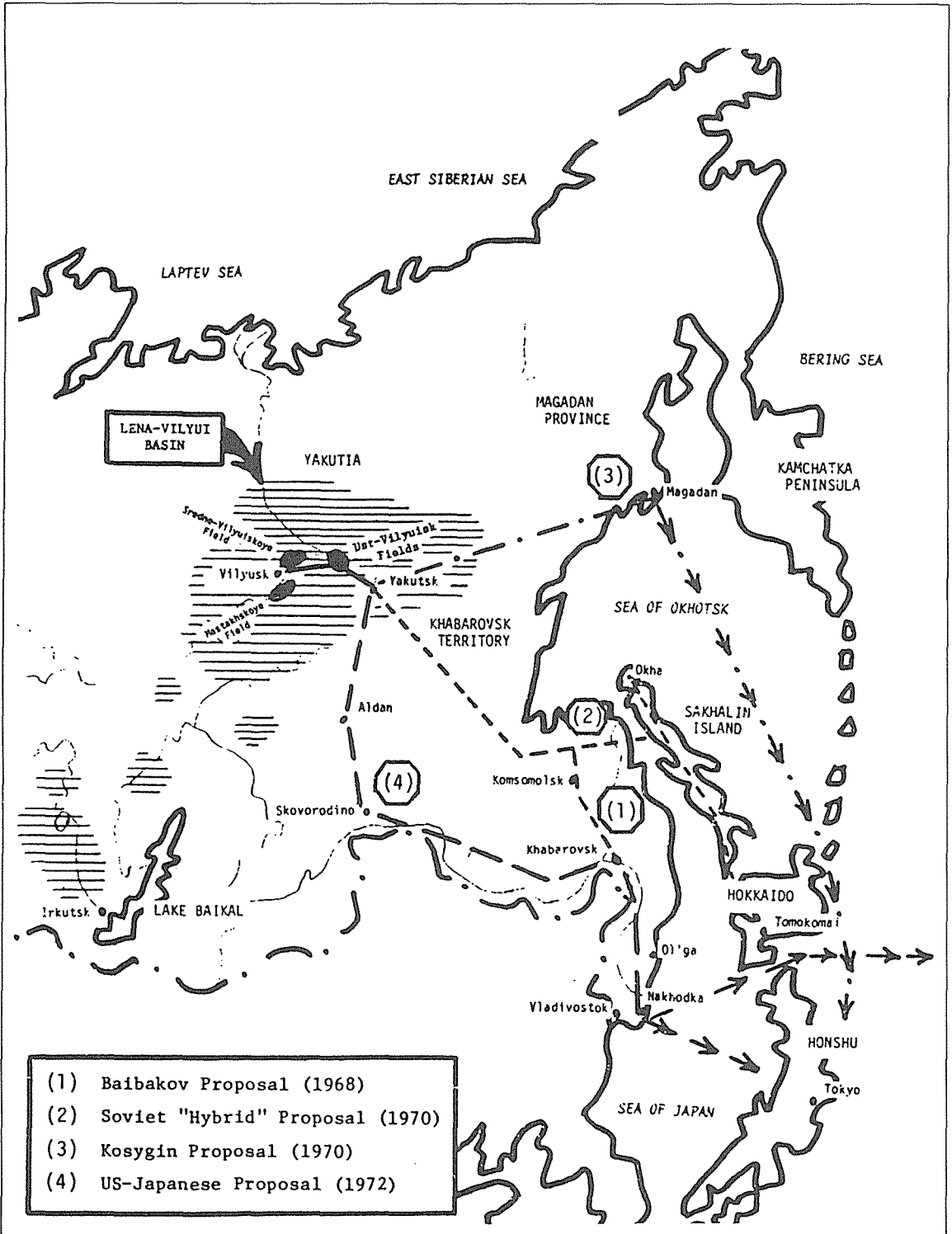
게다가 中國의 모든 기대가 쏠리고 있는 塔里木 (Tarim) 분지(동지역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中國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20억톤에 달한다고 주장되어 오다 최근에는 매장규모가 300억톤에 달한다고 수정·발표하였다) 및 吐魯番-哈密 (Turpan-Hami) 분지의 경우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을 위

한 하부구조(Infrasturcture)가不在할 뿐만아니라 기후조건이 열악하며, 산업화된 동부 연안지역으로의 수송체계(약2,000마일)를 구비하는데 엄청난 자본, 설비,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中國이 빠르면 90년대 중반부터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근거없는 낭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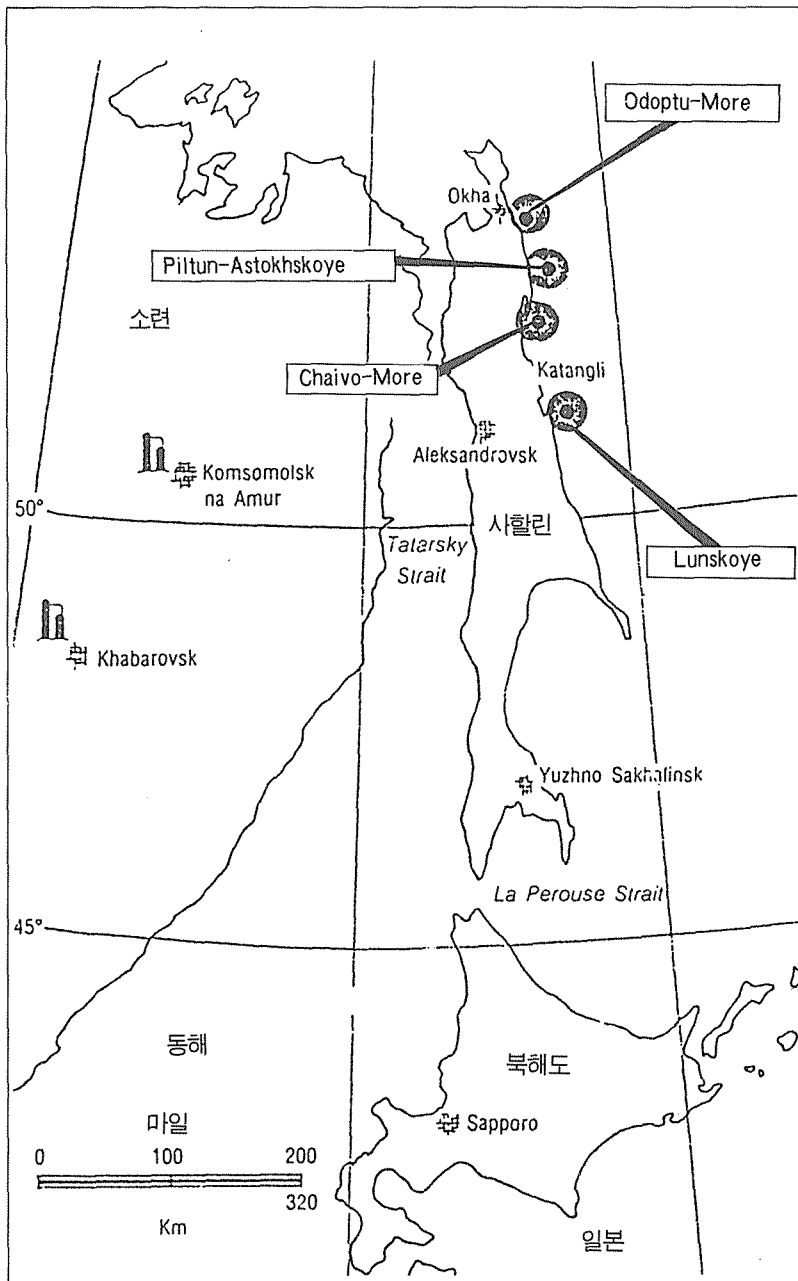
〈지도-2〉 사할린 파이프라인 건설안



〈지도-3〉아쿠티아 파이프라인 건설안



〈지도-4〉 사할린 해저 유전 및 천연가스田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를 것 같다(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원유 및 제품의 수입이 현격하게 증대되어 1988년엔 합계 500만톤을 기록했으며, 밀수되는 양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근원적으로 中國의 정제능력이 대폭

증대된 탓에 국내 생산으로는 1990년대에 정제를 위한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수출량을 확보함에 있어 차질이 생겨 中國 석유수입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련과 中國의 에너지 현실은 양국의 거대한

에너지 잠재력이 외부의 협력없이 개발·활용될 수 없는 시점에 달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허나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미개척지로 남아 있던 소련 및 中國에 대한 에너지협력의 문호가 갑작스레 열려진 까닭에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의 “북방자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되어져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할린 및 야쿠티아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을 위해선 정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日·蘇간의 북방4개 영토반환문제란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이 지역개발문제에 지금껏 4반세기의 노력을 경주해 제한된 결실을 거두고 있는 日本이 한국의 이 지역으로의 진출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65년과 1968년 소련측에 의해 제시된 사할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案(지도2 참조)과 야쿠티아 천연가스田으로부터 소련 극동해안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案(지도3 참조)을 日本이 접한 뒤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해 합의사항이 도출되려 했을 때 사할린石油開發協力株式會社(Sakhalin Oil Development Corporation Co., Ltd)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1976년 및 79년에 *Odoptu-more* 및 *Chaivomore* 油田이 사할린해저에서 발견되었다. (비록 지금껏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소련에서 제시한 입찰대상에서도 이들 두 유전은 제외되었다. 지도4 참조) *SODECO*의 제한된 성과가 완전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日·蘇간의 북방영토문제해결이 숙제로 남지만 지난 4월 정상회담시 이問題 해결을 위한 합의도출이 무위로 끝났는데도 日本이 G-7 정상회담과 美·蘇頂上會談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도록 하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북방자원공동개발협의를 통해 콘소시엄의 구성에 대해 논의 하겠지만 국익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분파적 접근이 전개된다면 일본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지역 자원개발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소극적인 수혜자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소련 극동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문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외교적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정책변수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의욕에 찬, 그러나 분파적인,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양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蘇聯 극동지역 뿐만아니라 中國의 발해만, 황해 및 동지나해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타림분지가 위치한 내륙지역,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서해의 공동개발을 겨냥한 정부출자 에너지기업들과 유관 민간기업들이 합작한 콘소시엄이 형성될 경우 그것은 대내적으로 경제용집력의 분산방지 및 사전이견조정외의 도모, 대외적으로 단일화된 협상창구를 통한 협상력의 강화와 동시에 실익추구를 꾀할 수 있는 우리의 對北方자원협력창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여기 日本의 *SODECO*와 노르웨이의 *BOCONOR*에 대한 소개내용들이 우리에게 다소간의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서 언급된 *SODECO*는 창립시 17개 민간회사가 자본금 4천만圓을 출자하여(지분율을 살펴보면, 日本石油公司和 海外石油公司在 각기 19.5%, 伊藤忠商事와 丸紅가 각기 15.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약30%는 12개 회사들에 의해 각 2.5%씩 점유되었다)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 자본금 300억圓 규모로 성장하였다. (현재 지분율 구성은 놀랍게도 42.5%를 점하고 있는 日本국영석유회사인 ‘石油公團’이 대주주이며, 소규모로 출자한 10개 회사의 지분율 12.8%를 제외한 44.7%를 세분해보면 石油資源開發 10.5%, 海外石油開發 10.5%, 伊藤忠商事 7.7%, 세브론(美) 5.6%, 芙蓉石油開發 5.2%, 코스모石油 2.9%, 丸紅 2.3%로 나타난다) 필자의 관심을 끈 대목은 *SODECO*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다. 1975년 1월 日·蘇간의 사할린해저석유·천연가스탐사를 위한 ‘일반협정’에 명시된 탐사비 1억달러 가운데 30%만이 창설민간회사들에 의해, 70%는 ‘石油公團’(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을 통해 충당되도록 하여 *SODECO* 창립초기에 日本정부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표면화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아마도 북방4개도서 반환 문제가 미결된 상황에서 日本정부가 사할린 개발지원을 공개리에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나 우리의 경우 日本의 전철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 지난 가을의 韓·蘇關係正常化가 對蘇資源開發協力の 걸림돌을 제거해 준 까닭에, 그 協力促進을 위해선 오히려 정부의 현시적 지원이 요청된다.

노르웨이의 BOCONOR (Barents Offshore Consortium of Norway)는 1983년 소련이 바렌츠(Barents) 海 공동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작성을 노르웨이 석유컨설턴트(Norwegian Petroleum Consultants : NPC)에게 요청했을 때 설립된, NPC, Aker, Det Norsk Veritas, Geko, Kongsberg, Kverner and Norwegian Contractors들로 구성된 합작회사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역시 소련과의 바렌츠 海 경계문제를 숙제로 남겨 놓은 채 실리정책을 추구한 점이다. 결국 양국의 사례는 위험부담이 큰 對蘇資源開發協力の 과제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란 물음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소련의 1988년 바렌츠 海에서의 초대형 천연가스田 슈톡마노브스코예(Shtockmanovskoye)의 발견 발표후, 1990년 4월,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蘇聯기업들이 이 가스田 개발타당성검토를 위한 콘소시엄 형성(蘇聯側이 지질탐사, 노르웨이의 Norsk Hydro가 생산, 핀란드의 Wartsila 社가 수송, 그리고 Neste가 마케팅 및 상업성부문을 책임짐)하여 1997년경부터 개발착수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과정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전개발과는 달리 천연가스의 개발은 "수요자의 시장"이 우선이란 인식이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上記 콘소시엄형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가 소련극동지역 천연가스개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對북방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정보교환과 전문가 양성이다. 북방에너지개발정보에 관한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지양되고 오히려 일종의 Information Pool이 형성되어 져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부·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합작회사가 설립될 경우 상당수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허지만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을 구하는 일은 전문가들을 알기 전에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Joint Venture 'Intershelf'를 만들어 1987~88년부터 사할린 해저유전개발에 진출, Early Production System을 도입하여 하루 1만 배럴 규모의 원유생산을 1992년부터 시작하려 하는 영국 엔지니어링회사 J. P. Kenny의 사할린 프로젝트 책임자 Dr. Paul Davis, 소련 천연가스문제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Energy Programme의 책임자 임과 동시에 RIIA 소장대행을 하고 있는 Mr. Jonathac P. Stern, 中國에너지문제연구에 정통한 Resource Systems Institute (East-West Centre, Hawaii)의 Mr. David Fridley, 소련 극동지역의 석유·천연가스 지질문제에 정통한 美國의 Arthur A. Meyerhoff(그는 비록 은퇴했지만), 그리고 석유경제학, 특히 bidding, Mapping, Taxation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에버딘大學의 A. G. Kemp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서방세계에 최근 알려지고 있는 蘇聯側 전문가들, Andrei A. Konoplyanik박사와 Mikhail Korchemkin교수, 그리고 특히 석유·천연가스 지질분야 뿐만 아니라 그 개발경제에도 정통한 Eugene M. Khartukov 교수에게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와는 별도로 전문가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현시적 결과를 위한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전문가 양성에 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韓·蘇關係正常화와 南北韓 유엔 동시가입실현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안정구축을 위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지금껏 이 지역에서 쌍무적으로 행해져 오던 에너지협력관계를 다자간 에너지협력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를 지역안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자. 소련 야쿠티아 천연가스田으로부터 총연장 5~6천

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망(grid)을 남한 및 일본까지 연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다. 먼저, 북한을 관통하여 남한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급체계의 안전장치확보의 문제, 둘째, 인접 에너지소비대국 中國이 소련 천연가스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등의 해결 없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 '에너지협력체' 구축의 길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이다(蘇聯의 Vostok Plan에서 수혜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中國에 대한 蘇聯側의 개별적인 접촉이 최근 이루어졌다. Yakut 자치공화국의 대표들이 Harbin Gas회사와 사전협상을 행했는데, 여기서 Harbin Gas회사는 Harbin 구역을 위해 연간 5백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는데 관심을 나타냈으며, 별도로 開放沿岸地帶(Open Littoral Zones)를 위해선 연간 8백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구입을 선택적으로 의뢰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후자는 中國이 蘇聯 극동 천연가스의 활용처로 훈춘자유무역지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결국 上記한 예는 소련 극동지역의 천연가스가 개발될 경우, 소련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南·北韓, 日本 그리고 中國이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場이 이 地域

에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련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는 서유럽제국이 그 의존도의 한도를 30%로 설정해 놓고도 통상 20~25%의 의존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최근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현장' 제정까지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유럽 에너지 협력체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상이 결코 실현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정부는 소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 구축계획을 활용하여 소련 야쿠티아에서 공급될 천연가스의 일부를 에너지소비가 많은 中國 동부연안 도시지역에 우리를 통해 재공급하는 방안모색과 해저유전 개발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북한당국에 서해 대륙붕공동개발제의 등과 같은 적극적인 對北方 자원정책을 전개하여, 작게는 東北亞에너지공동체 크게는 이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 日本의 주도권 장악을 방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역할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에너지協力증대를 통한 Spill-over 효과를 극대화하여 '東北亞經濟共同體' 구상의 실현을 촉진할 때이다. ●

□明心寶鑑□

待客은 不得不豊이요
治家는 不得不儉이니라

〈손님의 대접은 불가불 풍성해야 하고, 집안의 살림은 불가불 검소하게 해야 한다.〉

사람의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집의 인심이 그만큼 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가정은 대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산다.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활은 검소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로 절약하는 데서 부유한 생활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존 레이는 〈근면은 부유의 오른손이요, 절약은 부유의 왼손이다〉라고 말했다.

향락속에 범죄오고 근면속에 번영온다